



(주) 이생

# 치열한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시장 적극 공략할 터

## 기술개발에 남다른 투자로 매출 급증



▲ 이생이라고 쓰인 글자가 쉽게 눈에 띄는 천안공장 전경

### 92년 효증포장으로 시작

어느새 더위를 느낄만한 봄기운이 완연하고 오래간만에 의왕을 찾은 것은 라벨, 플라스틱 용기 업체인 주식회사 이생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공단으로 들어가는 길이 부산해진걸 보면 봄과 함께 우리 산업계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보았다.

지난해는 경기가 무척이나 어려웠고 포장산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역시 몹살을 앓았는데 지난 92년 (주)효증포장으로 창립한 주식회사 이생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에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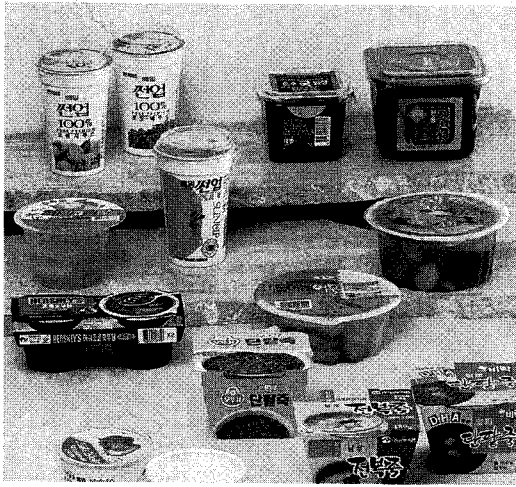
자를 아끼지 않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현재 종업원은 250명으로 천안, 의왕, 군산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희 이생은 94년 천안공장 준공과 함께 Plastic사업부를 시작으로 인쇄사

업부를 신설하여 생산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어 95년에는 의왕에 제2공장을 설립하고 회사명을 이생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인쇄사업부문 본부장 곽한영 이사는 밝혔다.

### 2개본부 체제

현재 1실14팀17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생은 크게 플라스틱사업부, 인쇄사업부, 지원부문이 천안, 의왕, 군산, 서울에 분리되어 있다. 플라스틱사업부는 플라스틱사업지원팀, 기술개발팀, 플라스틱영업팀, FP(연포장)생산팀, 플



▲ 이생의 다양한 플라스틱 성형용기



▲ 이생은 국내 뿐만아니라 국외의 병라벨을 생산하고 있다.

라스틱생산팀, 설비팀이 있고 인쇄사업부는 인쇄영업팀, 제작기획팀, 인쇄생산팀, 인쇄사업지원팀으로 구성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에 만족할만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인데 주식회사 이생의 경우 플라스틱사업부와 인쇄사업부에 기술개발부서를 두고 신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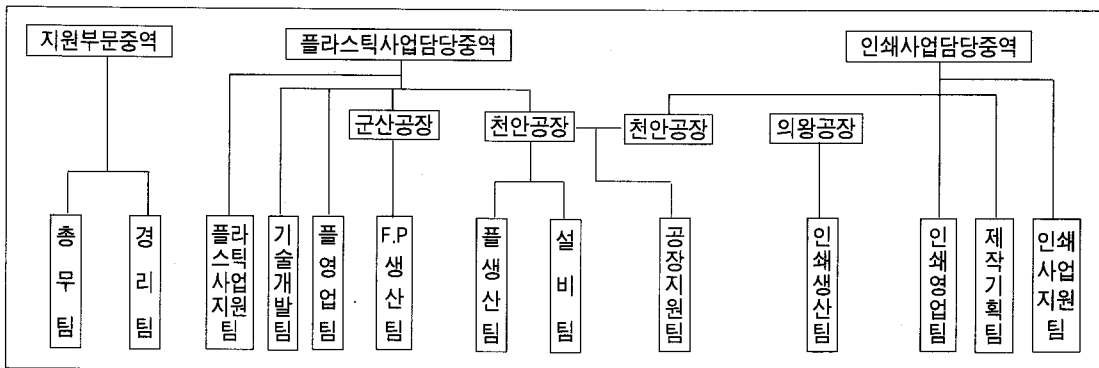
이생의 플라스틱사업부에서는 최근 가공무균 밥용도의 장기보존용 용기를 개발하여 소비자

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각종 플라스틱 다층용기의 개발로 산소를 차단시키고 맛과 향도 보존시킬수 있는 시트 및 용기를 개발하여 92년부터 생산·공급하고 있다.

### 플라스틱용기·지기·라벨 생산

이생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은 라벨, 플라스틱 용기, 지기, 산업용자재등으로 다양하다.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TOYO SEIKAN사와 기술제휴하여 고차단성 다층 공압출시트

(그림 1) 조직도





(주) 이생

를 생산하고 있으며 용도별로는 장기보존형 다층시트, 전자레인지·레토르트용 다층시트, 식품위생성 요구르트 시트, 환경친화성 Filler시트, 분해성시트, EASY PEEL용 다층시트 등 최고 9층구조의 제품까지 생산하고 있다.

Lamicon Tray는 공압출 다층시트로부터 만들어지며 산소투과도가 적어 고온(120°C ~ 125°C)에서도 사용 가능한 점과 살균능력 등이 타제품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Coloring이 자유자재인 사출제품은 생수병, 캡등의 각종 산업용 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병은 INJECTION BLOWING 방식으로 생산된다. 또한 UNILLOY MACHINE에 의해 3 STAGE로 가공·성형되는 IBM제품은 구부 평활도가 정밀하여 CAP에 이상이 있더라도 누수가 되지 않고 제품의 품질을 유지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사용상 누수를 막아주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이외에도 이생은 6개월에서 1년까지 장기보존이 가능한 레토르트 파우치등의 연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Roll Fill, Standing Pouch 등을 생산할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있다.

인쇄부문에서는 환경에 무해한 저공해 수성 코팅 설비로 지기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인쇄와 코팅이 DIRECT로 가능해 인쇄, 코팅의 품질에서 타사제품 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합지, 톰슨, 접착등의 공정에 있어서도 각 공정별 최신 첨단 설비를 도입하여 품질과 생산성이 우수하다.

금·은박 효과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 최초로 알미늄 증착지 라벨인쇄·가공이 가능한 설비를 도입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수입에 의존하던 증착지를 국산화하겠다는 의지로 원지 생산업체와 알미늄 가

[표 1] 공장별 주요 설비

천 안	의 왕	군 산
• 인쇄	OFF-SET	ROLAND 2 색기
-GRAVURE인쇄기 2대	인쇄기	HEIDELBERG 2 색기
-SHM SHEET CUTTER 1대		HEIDELBERG 1 색기
-재단기 3대		LITHLONE 5 색기 2대
-PUNCHING M/C 2대	재단기	WHOLEBERGMCS 2
-SLITTER REWINDER 1대		POLAR 115 EMC
-SHEET, REWINDER 추가 1대	JOGGER	ACE 100
• PLASTIC	합지기	HUTAKAMI
-9 LAYERS SHEET M/C 1대		국제기계
-성형기 4대(PP,PS)	접착기	SUN-ENGINEERING
-CUP 인쇄기 2대		국제기계 SUP-850AM
-IBM & LABELLER 1LINE	톰슨기	BOBST
	형압기	독일제
	금박기	ET-900
		그라비아 인쇄기 1대
		DRY 1대
		EXT 1대
		Sealer 1대
		Slitter 1대
		Hot melter 1대

공업체의 긴밀한 협조를 얻어 국산화에 성공해 이미 국내시장에 사용화 시킨바 있다.

경쟁이 치열한 업체 특성상 경쟁자들과의 차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생에서 생산된 라벨들은 사용업체들의 생산설비의 특성에 맞게 부착성, 세병성, 내수성 등 요구되는 모든 항목들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에 맥주상표의 수출은 물론 동남아에도 수출해 국내시장은 물론 수출시장에도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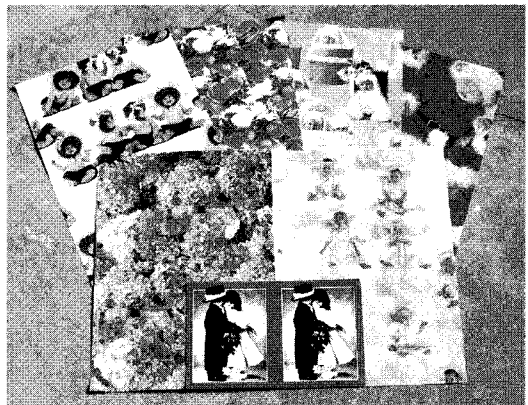
최근 이생은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는데 그간 장기보존등 용기로 사용되어 오던 PP용기에 이어 장기보존 PS 용기를 개발하여 이달중 출시할 예정이다. PS가 PP보다 가격이 비싸고 내열성이 떨어진다는 점때문에 업계에서 시도를 꺼려 왔는데 강도가 강하고 성형이 용이해 이번에 이생이 시도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과자 및 스낵류의 내외포장등에 사용되는 Easy Tearing Pouch를 새롭게 선보일 준비를 하고있다.

**천안공장 향은·항습, 클린룸 시설 갖춰**

의왕공장을 떠나 천안공장으로 향하는 길이 봄햇살과 푸른자연에 심취하다보니 생각만큼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깨끗한 모습으로 기자를 반기는 이생의 천안 공장은 6천7백평에 연건평 3300평으로 공장내 설비가 모두 정렬되어 보는 이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플라스틱공장, 인쇄공장에서 직접 접한 제품들은 전과정을 통하여 완벽하고 오차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마지막 검수작업라인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작업자들의 모습을 보며 품질에



▲ 이생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유아용 포장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더욱이 식품류 포장이 대부분이다보니 생산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설비한 클린룸 시설은 선진 외국에서도 방문해 놀랄 정도며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에 적합하도록 SETING하면 자동적으로 실내의 향온, 항습 상태를 유지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중 하나로 꼽힌다.

짧은 역사에도 매출액 400억을 달성하게 된 것은 경영자들의 끊임없는 기술투자, 최첨단의 설비도입 그리고 종업원들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 때문이 아닐까 여겨진다.

처음시작은 플라스틱용기 생산으로 지금의 지기, 라벨, 포장지 인쇄, 포장지 생산 등에 이르기까지 힘든 과정을 겪어 왔지만 이생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국내 최고는 물론 세계로 향하는 종합포장회사 꿈꾸며 기술개발과 제품생산에 정열을 다하고 있다. [Ko]

이선하 기자

**정기구독 780-9782**